

3월 국회 개회... 한전공대법 처리돼야 내년 개교

與, 추경·상생 3법 처리 추진...광주·전남, 여순사건특별법 처리 관심 정 총리, 5일 4차 추경 시정연설...국민의힘 추경 반대에 심사 난항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 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서둘러 처리한 반면, 광주·전남 주요 현안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5일 국무총

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디

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분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생연대3법도 법

안 발의, 심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생연대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현안 법안 중에서는 한전공대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서는 3월께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敎舍·학교 건

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발목이 묶여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당원 온라인투표·여론조사 69.56% 지지...야권 제3지대 안철수 승리

4·7재보궐선거를 한 달 여 남겨두고 여야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4선 의원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1일 선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2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권리당원 및 서울시민 선거인단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등을 통해 총 69.56%의 지지를 얻었다. 경쟁 상대였던 4선 현역인 우상호 의원은 30.44%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박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에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통해 범여권 단일 후보에 도전하

게 된다.
야권에서도 후보 단일화 작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이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의 오는 4일 확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일전을 벌이게 된다.
안 대표는 신속한 최종단일화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여당을 이기기 힘든 선거"라며 "잡음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단일화에 대해 말씀 나올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품 살포의혹' 후보 부적격 순천 도의원 보선 후보 재공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3일부터 3일간 4·7 보궐선거 순천 1선거구 도의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앞서 전남도당 공판위는 지난달 25일 금품 살포 의혹 공방이 제기된 순천 1선거구 도의원 후보자 2명(정병희, 주윤식)에 대해 자적 심사를 거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후보자 재공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남도당은 두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후보자 각 금품 살포 의혹 공방,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 조작 공방, 과거 의정활동 관련 폭력 등 품위유지의 무 위반을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재명 독주' 친문, 두 개의 시선

핵심 그룹, 기본소득 비판...이해찬 등 정권재창출 위해 소통 강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 속에서 여권 내부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친문 핵심 그룹이 '이재명 견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 중심의 구(舊)당권파 친문 그룹은 상대적으로 중립·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다.
친문 핵심 그룹은 '이재명표 브랜드'인 기본소득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정책 검증에 가세했다. 부영이 모임 출신의 한 의원은 1일 "기본소득은 현재 상황상 불가능하고 논리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될수록 이 지사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론됐던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이나 이른바 '벌떼 전략'으로도 불리는 제3후보론도 결국은 '이재명 흔들기'로 요약된다. 홍영표, 김종민, 황희, 김영배, 정태호, 윤건영 의원 등 친문 핵심 그룹 내에서는 일정부분 정서적 반감도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모습이 각인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태연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김경협, 홍익표, 김성환 의원 등 구당권파 친문 그룹의 기류는 다소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심축 격인 이해찬 전 대표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사 측에서는 이 전 대표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조언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해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메신저로 잡는다. 이른바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던 이 전 대표로서는 당선 가능성 높은 인사를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지사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2018년 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내 출당 요구가 제기됐지만, 당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유보'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우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최근에도 "사람이 없지 않으나,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체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대표의원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

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글로벌우신에서 알립니다

저희 회사는 광주광역시 선운지구내에 있는 해광상그릴라 217세대를 소유한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글로벌우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정당하게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1%에 주식이 없는 자들이 주주행세를 하며 대표이사를 제 마음대로 선임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바 2021년 2월 15일에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불법을 감행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진에 대하여 회사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현재 검찰에 고소를 진행중에 있는바 이들에 범죄로 인한 2차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들에 목적은 글로벌우신이 소유한 해광상그릴라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매매하기 위함으로 밖에는 보여질 수 없는 만큼 서둘러 지면을 통하여 알리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이런 제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을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 2층
연락처 | 02-2135-2020
팩스 | 02-2135-2272

유한회사 글로벌우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자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안국사회복지협의회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종 양 222-9054	• 충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천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